



### 우치동물원-24시노아동물메디컬센터, MOU

광주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와 24시노아동물메디컬센터는 지난 16일 동구 대인동 24시노아동물메디컬센터에서 우치동물원의 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치동물원 동물 관리에 관한 의료기술·정보·연구 활동의 교류 △우치동물원 동물의 질병 검진, 진료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우치동물원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치공원은 24시노아동물메디컬센터가 보유한 약 20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활용해 동물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우치동물원이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역할을 넘어 전문화된 진료로 멸종위기 동물의 보전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도시공사, 청림의 달 행사 ‘청림 골든벨’

광주도시공사는 8월 한 달 동안 임직원의 청림 의식 내재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림의 달’을 운영한다. (사진)

1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청림의 달은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기관장 ‘청림서한문’ 게시 △청렴 ON AIR 아침방송 △갑질 자가진단 △반부패·갑질 신고센터 모의훈련 등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난 14일에는 임직원의 청림의식 향상을 위한 ‘도전! 청림 골든벨 퀴즈대회’가 개최됐다.

청림 골든벨은 일반적인 집합교육과 달리 서바이벌 퀴즈 형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청탁금지, 이해충돌,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법령에 대한 퀴즈풀이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도를 제고했다.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최종 골든벨은 법무팀 문병윤 팀장이 올랐다. 노병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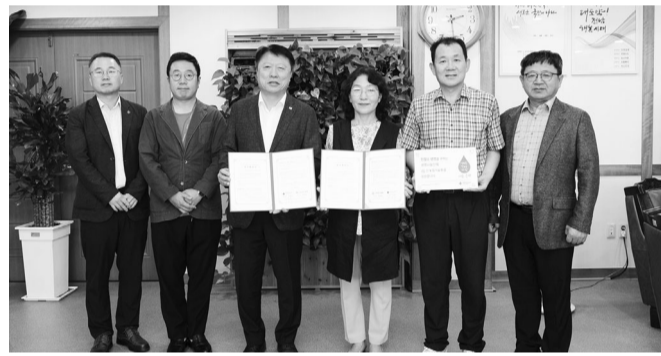


### 광주·전남 필리핀 공동체, 교류 행사 개최

광주·전남 필리핀 공동체는 18일 광산구 월전공원에서 ‘2024 팔라롱 피노이(필리핀 놀이)와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필리핀 문화유산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주민 500여명과 내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가 자리를 빛냈다.

세부내용으로는 톰방 프레소(강통 쓰러뜨리기), 파틴테로(선 건너기), 록송 바카(뛰어넘기) 등 필리핀 전통놀이가 있었고 가수 ‘드림노트’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필리핀 예술·공예 및 전통음식을 선보였다. 행사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글로벌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후원했으며, 출장상담부스를 운영해 필리핀 출신 외국인주민들에 외국인주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전남혈액원-전남도 농기원 업무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은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현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전남도 농업기술원 본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행란 전남도 농업기술원장,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 현혈 동참 △현혈문화 정착 지원 △자원봉사활동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행란 원장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인 현혈의 가치를 이해하고 동참한다”며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현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수 원장은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생명나눔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생명나눔 현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광주 동구,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광주 동구는 최근 구청 소속 19개 옥외 사업장, 현장 근무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체온 저감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관련 안전보건 물품(넥 쿨러·선풍기·냉수 등)을 배부하고, 19개 옥외 사업장 순회 점검에 나섰다.

또한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광주교통공사, 전동차·역사 방역 강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통공사가 시민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18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법정 기준이 월 1회인 전동차 및 역사의 방역 강도를 대폭 높여 전동차와 차량기지는 월 2회, 역사는 월 3회까지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승객들이 직접 접촉하는 전동차 손잡이, 시설물의 손잡이와 버튼, 일회용 승차권 등은 매일 수시 살균하고, 전동차 의자는 친환경 살균소독제를 첨가해 매일 고압 스팀 소독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철저한 긴장감을 갖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유럽 영화의 상징... 배우 알랭 들롱 세상 떠났다

1960년대 유럽 영화 황금기를 상징하는 배우이자 미남의 대명사였던 알랭 들롱(Alain Delon·사진)이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 시각) 자녀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파비앙·아누슈카·앤서니 세 자녀는 성명을 통해 “아버지는 두수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들롱은 2019년 뇌졸중을 겪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들롱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빼어난 외모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 받으며 20세기 유럽 영화를 상징하는 배우로 불렸다. 특히 1950~60년대 유럽 영화를 요약하는 두 가지 흐름인 프랑스 누벨바그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평가 받는다.

1935년생인 들롱은 1957년 영화 ‘미녀와 도련님’으로 데뷔한 이후 약 50년간 영화 90여편에 출연했다. 1960년 르네 클레망 감독의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다만 들롱은 스타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채워가기보다는 프랑스·이탈리아 예술영화 감독과 작업하며 영화 예술 세계 확장에 기여했다. 대표작으로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이클립스’(1962),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레오파드’(1963),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의 ‘사투라이’(1967), 자크 드레 감독의 ‘라 피신’(1969) 등이 있다. 민현기 기자

## 배우 김민희,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연기상 수상

배우 김민희가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다.

김민희는 17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열린 제77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수유천’으로 연기상(Pardo for Best Performance)을 받았다.

김민희는 “따뜻한 말을 해주신 관객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들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길게 찍고 싶었는데(촬영 기간) 5일이 너무 짧았다. 그 짧은 시간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다. 감사하다”고 했다. ‘수유천’은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만든 32번째 장편영화로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시상식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민희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홍 감독 손을 한번 잡은 뒤 일어났고, 상을 받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서는 홍 감독에게 트로피를 건네기도 했다. 또 홍 감독 어깨에 기대기도



홍상수 김민희.

했다. 홍 감독은 이 모습을 웃으면서 바라봤다.

홍 감독은 로카르노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2015년 ‘지금에맞고그때는틀리다’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고, 2013년엔 ‘우리 선희’가 감독상을 차지했다. 2018년 ‘강변호텔’의 배우 기주봉이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적도 있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는 칸·베네치아·베를린에 비견되는 영화제로 꼽히며 매년 8월에 열린다.

‘수유천’은 올해 중 국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엔 김민희와 함께 권해효·조윤희·하성국 등이 출연했다. 김민희는 연기 뿐만 아니라 제작 실장으로 참여했다. 뉴시스

## 캣츠아이, 입소문 탔다...하이브·美 게펜레코드 걸그룹

하이브(HYBE)와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 산하 게펜 레코드의 글로벌 걸 그룹 ‘캣츠아이(KATSEYE·사진)’가 음악팬들 사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 상승세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18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캣츠아이 첫 번째 EP ‘SIS(Soft Is Strong)’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터치(Touch)’가 ‘데일리 바이럴 송 글로벌’ 7위(8월 15일 자)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싱글 형태로 선공개된 이 노래는 전 세계 22개 국가/지역의 스포티파이 동 차트(8월 12일 자) ‘톱 10’에 들었다. 특히 세계 최대 팝시장인 미국(4위)을 비롯해 캐나다(4위), 영국(6위), 일본(7위), 브라질(7위), 프랑스(9위), 스페인(10위) 등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바이럴 송 글로벌’ 차트는 재생 횟수나 공유빈도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곡의 데이터를 집



계해 순위를 매긴다.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는 ‘터치’의 인기 비결로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특색 있는 포인트 안무를 꼽았다.

글로벌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캣츠아이의 앨범도 인기 순항 중이다. ‘SIS(Soft Is Strong)’는 16일(현지시간) 발매 직후 미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 16위로 진입했다.

이 외에도 이 앨범은 슬로바키아 1위, 말레이시아 2위, 베트남 3위, 홍콩 4위, 필리핀 5위, 태국 7위, 대만 10위, 스페인 19위 등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뉴시스